

嚴羽 《滄浪詩話》의 詩法論 考察

이 치 수*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滄浪詩話》의 詩法論 |
| II. 嚴羽의 詩法觀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嚴羽의 《滄浪詩話》는 宋代의 대표적인 詩學 비평서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문학비평사에 있어서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는 책으로, 《詩辨》, 《詩體》, 《詩法》, 《詩評》, 《考證》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고전 시학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였다. 이 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詩辨》편을 중심으로 詩禪說(‘以禪喻詩’), 妙悟說, 興趣說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방면에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부분, 특히 《詩法》편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明代의 李東陽이 일찍이 송대를 평하면서 이 시기의 시인들이 詩法을 즐겨 논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¹⁾ 송대 시학의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가 바로 이 詩法에 대한 講究이다. 그러므로 宋代 시학비평가의 한 사람인 엄우가 그의 저작에서 詩를 논하면서 詩法에 관한 章을 따로 마련한 것은 당연한 것으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李東陽, 《懷麓堂詩話校釋》, 人民文學出版社, 2009, 7쪽. 唐人不言詩法, 詩法多出宋.

로 보인다. 그런데 宋代의 시인들 중에서 이 詩法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黃庭堅과 그를 宗主로 하는 江西詩派이며, 엄우는 이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 엄우는 詩法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피력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詩法에 관해 피력한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그 동안 엄우의 詩學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詩法論의 특색을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엄우의 시학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갖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嚴羽의 詩法觀

시인들은 대체로 시를 올바르게 잘 짓기 위해 詩法을 강구한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詩法을 중시하고 따지는 것이 큰 풍조를 이루었다. 특히 黃庭堅을 종주로 하는 江西詩派는 법도를 매우 중시했다. 황정견은 杜甫 시의 句法을 논하면서 ‘간단하나 大巧가 나오고, 平淡하나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깊다’고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²⁾ 嚴羽와 마찬가지로 南宋에 속하는 姜夔는 처음에는 강서시파를 학습하였다가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 자기 나름의 시를 지었는데, 이런 그도 《白石道人詩說》에서 ‘詩란 法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시를 논하면서 전체 책을 〈詩辨〉, 〈詩體〉, 〈詩法〉, 〈詩評〉, 〈考證〉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詩法〉篇을 따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엄우가 詩法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作詩에서 법도를 중시하는 관념은 嚴羽나 江西詩派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嚴羽가 생각하는 ‘詩法’은 무엇이고 《滄浪詩話》에서

2)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卷2, 鳳凰出版社, 2006, 943쪽. 黃庭堅, 《山谷文集》 卷19 〈與王觀復書〉. 簡易而大巧出焉, 平淡而山高水深,

3) 같은 책, 卷7, 7548쪽. 守法度曰詩.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滄浪詩話》에는 ‘詩法’과 유사한 용어로 ‘詩之法’이란 말 또한 보이는데,⁴⁾ 이 두 가지는 그 의미가 똑같지는 않다. 엄우가 말하는 ‘詩之法’은 시를 지을 때 전체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要素를 가리키며, 《詩法》편에서 논하는 ‘詩法’은 실제로 시를 짓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요점과 작시 방법이다. 그리고 이외에 《詩評》편에서도 杜甫와 李白의 시를 평하면서 ‘詩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⁵⁾ 이것은 이들의 시 짓는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창작 특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크게는 作詩法과 관련되어 있다. 엄우의 作詩法과 관련된 ‘詩法’에 대한 논의는 《詩法》편에서 주로 보이는데 모두 19條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중에서 6조목은 창작의 3단계, 시 감상 및 평가, 시가의 체재 및 시인의 풍격 유과 분별 등을 언급하여 직접적으로 詩法을 다룬 것이 아니며, 나머지 13조목이 作法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구성 내용을 보면, 엄우는 구체적인 作詩法뿐만 아니라, 시를 지을 때 유념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까지도 두루 포괄하였다. 이것은 엄우 이전의 전통적인 논술과 다르며, 이전보다 더 창작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문학비평사에 있어서 詩法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魏晉南北朝 시대부터 이미 글을 통해 보이는데, 이 시기의 문학비평가들은 ‘詩法’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작품의 構造나 體裁와 관련된 법도, 그리고 창작의 구체적인 방법이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다.⁶⁾

엄우가 《詩法》편을 따로 두어 시법을 중시하였지만, 시법을 맹종하거나 혹은 시법에 너무 구속을 받는 것을 반대했다. 이 점은 《詩法》편에서 여러 차례 보인다. 이를테면 ① “반드시 用事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不必多

4) 같은 책, 卷9, 8718쪽, 《詩辨》. 詩之法有五: 曰體製, 曰格力, 曰氣象, 曰興趣, 曰音節.

5) 같은 책, 卷9, 8728쪽, 《詩評》. 少陵詩法如孫吳, 太白詩法如李廣.

6) 이치수, 《魏晉南北朝 시기의 詩法論 연구》, 《中國語文學》 第68輯, 2015, 11쪽.

使事)”, ② “글자를 씬에는 반드시 그 來歷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用字不必拘來歷)”, ③ “押韻은 반드시 그 出處가 있을 필요가 없다(押韻不必有出處)”, ④ “제목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不必太著題)”라고 말한 것처럼, 엄우는 用事, 用字, 用韻, 題目과 관련하여 ‘不必’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詩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도에 너무 꼭 매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법에 대한 엄우의 입장이 ‘守法’과 ‘無法’ 사이에 있으며, 법도의 자유롭고 적절한 운용을 주장하여 ‘活法’을 지향함을 말해준다. 엄우 자신도 “모름지기 活句를 參究하여야 하며, 死句를 參究하지 말라.”⁷⁾라는 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엄우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히 시법에 관한 일반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송대 시인들의 시의 작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해 올바른 시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宋代의 蘇軾과 黃庭堅으로 대표되는 시인들의 詩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져, 이들이 ‘用事’를 하는 데에 힘을 많이 쓰고 ‘글자를 씬에 있어서 반드시 來歷이 있게 하고’ ‘押韻을 함에 반드시 出處가 있게 하였다’고 평했다.⁸⁾ 위에서 든 ①에서 ③의 인용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엄우는 특히 黃庭堅을 추종하는 江西詩派가 지나치게 법도를 중시하면서 점차 법도가 固定化되어 가고 이에 따라 作詩에서 生硬晦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弊端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엄우의 시법론은 또 그의 주요 시학 이론, 이를테면 〈詩辨〉편에서 주장한 妙悟說과 興趣說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엄우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시는 妙悟를 통하여 興趣를 나타내어야 한다. 엄우가 盛唐詩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興趣’에 있으니, “詩는 情性を 읊는 것이다. 盛唐의 여러 시인들은 오로지 興趣에 마음을 두었다.(詩者, 吟詠情性也. 盛唐諸人惟在興趣.)”라고 말했다. 그런데 “宋代의 시인들은 理致는 숭상하나 意와 興의 표현에 문제점이 있고⁹⁾”, 특히 ‘近代의 諸

7) 吳文治, 앞의 책, 卷9, 8725쪽, 〈詩法〉. 須參活句, 勿參死句.

8) 같은 책, 卷9, 8720쪽, 〈詩辨〉. 近代諸公 ……且其作多務使事, 不問興致; 用字必有來歷, 押韻必有出處.

公들은 興致를 묻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이것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興趣’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詩法’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우의 〈詩法〉편은 〈詩辨〉편과 相補의 관계에 있으며, 엄우의 시법론은 올바른 詩道를 전하고자 하는 그의 주요 시학 주장과 이론을 뒷받침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Ⅲ. 《滄浪詩話》의 詩法論

嚴羽의 시법론은 주로 〈詩法〉편에 보이고 다른 편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를 지을 때 유념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作詩 方法과 原則이다.

1. 作詩와 關聯된 留意 사항

첫째, 엄우는 《滄浪詩話·詩法》편에서, 시를 지을 때 무엇보다도 주의 할 점은 詩라는 장르의 본연의 특색에 대해 올바르게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였다.¹⁰⁾

둘째, 시에는 형식상 여러 체제가 있는데 각 체제별 특색에 따라 짓기에 쉽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를 잘 살펴 作詩에 임해야 된다고 보았다.¹¹⁾ 그리고 시인의 流派와 풍격 특색을 잘 변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는데¹²⁾, 시 창작을 잘 하기 위한 공부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 학습의 세 단계를 논했다. 처음에는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고

9) 같은 책, 卷9, 8727쪽, 〈詩評〉. 本朝人尚理而病於意興.

10)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須是本色, 須是當行.

11) 같은 책, 卷9, 8726쪽, 〈詩法〉. 律詩難於古詩; 絕句難於八句; 七言律詩難於五言律詩; 五言絕句難於七言絕句.

12) 같은 책, 卷9, 8726쪽, 〈詩法〉. 辯家數如辯蒼白, 方可言詩.

붓을 멋대로 놀려 여러 편의 시를 짓다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비로소 두려움과 위축됨이 생겨나 시를 짓기가 극히 어려워지며, 마지막에는 詩道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멋대로 손가는 대로 시를 지어도 모두가 다 詩道에 맞게 됨을 말했다.¹³⁾ 詩道の ‘不悟’에서 ‘悟’로 나아가고, ‘守法’에서 그것을 벗어나 “손가는 대로 써도 모두가 다 詩道에 맞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니,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됨을 강조했다. 學詩의 세 단계를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作詩의 세 단계도 포함해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이러한 훌륭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를 볼 적에 반드시 詩道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즉 ‘金剛眼睛’을 갖추어야 ‘旁門小法’에 미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시를 지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¹⁴⁾

다섯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의 시를 많이 읽고 參究하여야 되며, 실제 창작과 관련해서는 ‘活句를 參究해야 하며 死句를 參究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作詩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여, 시 짓기를 열심히 하여 옛날 훌륭한 시인들의 경지에 이르러야함을 강조하였다.¹⁵⁾ 엄우의 이 말은 옛날 시인들의 시를 그대로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훌륭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결국 훌륭한 시를 짓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고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점들이다. 훌륭한 作詩를 위해서 우선 詩라는 장르의 특색과 시의 형식상 여러 體裁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를 잘 볼 줄 알고 잘 배울 줄 알아야 함을 지적하였고, 또 ‘훌륭한 作詩란 과연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3) 같은 책, 卷9, 8726쪽, 〈詩法〉. 學詩有三節: 其初不識好惡, 連篇累牘, 肆筆而成; 既識羞愧, 始生畏縮, 成之極難; 及其透徹, 則七縱八橫, 信手拈來, 頭頭是道矣.

14) 같은 책, 卷9, 8726쪽, 〈詩法〉. 看詩須着金剛眼睛, 庶不眩于旁門小法.

15) 같은 책, 卷9, 8726쪽, 〈詩法〉. 詩之是非不必爭, 試以己詩置之古人詩中, 與識者觀之而不能辨, 則真古人矣.

2. 구체적인 作詩法과 基本原則

1) 세부적 作詩法

엄우는 《滄浪詩話詩辨》편에서 “(시에서) 功力을 들이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起結, 句法, 字眼이다.¹⁶⁾”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성 요소와 관련된 규범, 법도를 각기 ‘篇法’(章法), ‘句法’, ‘字法’이라 命名할 수 있다. 엄우는 字와 句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편의 시의 여러 구성 요소를 나누어 살피고, 이들의 적절한 운용 및 법도를 중시했다. 이외에 엄우는 시의 주요 요소로 ‘音節’,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방법으로 ‘用事’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詩法의 범주에 대해서 엄우는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篇法

어떤 문학 작품이든 우선 題目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서 엄우는 《詩法》편에서 “반드시 題目의 뜻에 너무 딱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不必太著題.)”는 점을 강조했다. 제목과 내용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나 너무 집착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엄우는 한 편의 시가 發端, 領聯, 頸聯, 그리고 落句(結句)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¹⁷⁾ 제목 외에, 한편의 작품의 구성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과 끝마무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관련해서 엄우는 시의 처음 시작 부분은 句소리를 늘어놓거나 고의로 어떤 허세를 부리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마무리는 시인의 뜻을 어떻게 잘 나타내면서 마치는가에 成敗가 달려있다고 보았다.¹⁸⁾ 《詩評》편에서 李白의 시를 평하면서 시작 부분에서 취지나 요점을 바로 이야기하는 특색을 지적했다.¹⁹⁾ 또

16) 같은 책, 卷9, 8718-8719쪽, 《詩辨》. 其用工有三: 曰起結, 曰句法, 曰字眼.

17) 같은 책, 卷9, 8724쪽, 《詩體》. 有領聯, 有頸聯, 有發端, 有落句, 結句也.

18)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發端忌作舉止, 收拾貴在出場.

19) 같은 책, 卷9, 8728쪽, 《詩評》. 太白發句, 謂之開門見山.

〈詩法〉편에서 말하길, “시에서 어려운 곳은 마무리에 있다. 비유컨대 오랑캐 같은 반드시 북방 사람이 사용하여 마무리해야 하며, 만일 남방 사람이 하면 본래의 特色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없다.”²⁰⁾라고 하여, 詩를 지을 때, 작품마다 적절하게 끝마무리를 잘할 것을 강조했다.

엄우는 또 “脈은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脈忌露)”고 지적했다. 이 ‘脈’은 사람 몸의 血脈을 가리키며, 시에서 詩意의 전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한다. 한 편의 詩文을 구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대체로 魏晉南北朝서부터 논의가 있었으며, 그 뒤 唐代에는 魏晉南北朝의 章法論의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탐구가 행해졌다. 徐夔와 王觀은 각기 《雅道機要·敘血脈》과 《灸叢子詩格》에서 한 편의 시는 首尾가 서로 呼應하고 條理가 一貫될 것을 강조했다.²¹⁾ ‘血脈’說은 후일 宋代 詩話에 영향을 미쳐, 北宋의 吳沆와 南宋의 姜夔는 각기 《環溪詩話》와 《白石道人詩說》에서 시를 구성하는 4大 要素 중의 하나로 ‘血脈’을 들었으며, 韓駒는 作詩에서 首尾의 ‘語脈’이 連續되길 요구했다.²²⁾ 엄우 역시 시의 章法에서 ‘血脈’을 중시하는 전통을 계승했는데, 그의 주장은 기존의 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의 전체 구성에서 詩意의 脈의 표현을 함축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② 句法

句法 문제는 宋代의 詩論家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北宋의 許顥는 詩話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句法の 辨別이라고 밝힌 바 있다.²³⁾ 엄우는 〈詩法〉편에서 句法을 논하면서 “對句는 좋은 것을 얻

20)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詩難處在結表, 譬如番刀, 須用北人結表, 若南人便非本色.

21) 이치수, 〈唐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中國語文學》 第56輯, 2010, 52-53쪽.

22) 吳文治, 앞의 책, 卷10, 10464쪽. 范季隨, 《陵陽先生室中語》. 大槩作詩要從首至尾語脈聯屬.

23) 같은 책, 卷2, 1392쪽. 許顥, 《彥周詩話》. 詩話者, 辨句法.

을 수 있지만, 結句는 좋은 것을 얻기 어렵고, 發句는 잘된 것을 더욱 더 얻기 어렵다.”²⁴⁾고 말했다. 시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의 중간 부분의 對句를 잘 지으려고 힘을 들이는데, 엄우는 이에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할 것이 바로 처음 시작과 끝맺는 句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작품의 시작 부분을 잘 짓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았다. 對偶句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詩辨》편에서 각종 종류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고, 宋代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에 의해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詩法》편에서는 이에 대해 詳論하지 않았다. 그러나 對偶句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詩評》편에서는 謝靈運의 詩를 평하면서, 그의 시가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對句를 이루지만 작품 全篇에 걸쳐 氣象이 뛰어난 建安의 시에는 못 미친다고 보았다.²⁵⁾ 또 謝靈運의 시가 精工하지만 陶淵明의 시가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점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했다.²⁶⁾ 이것을 보면 엄우는 오로지 對偶句의 工巧만을 중시하지는 않았으며, 作法의 精妙 工巧보다는 質樸 自然과 氣象을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그의 工拙論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宋代에는 ‘工拙’로 詩와 文을 논하는 工拙論이 널리 유행하며 宋代의 詩論 중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엄우는 그가 典範의 대상으로 높이 치는 盛唐의 시인들에 대해서는 “盛唐의 시인들은 시가 거친 듯하면서도 거칠지 않은 데가 있고, 拙劣한 듯하면서도 拙劣하지 않은 곳이 있다.”²⁷⁾고 말했다. 이것은 老子가 이른바 ‘大巧若拙’의 경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宋代의 蘇軾과 黃庭堅 및 江西詩派 등의 시를 비판하면서, 이들의 시가 어찌 工巧롭지 않겠는가마는 결국 古人之 시는 아니라고 보며 결코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²⁸⁾

24) 같은 책, 卷9, 8725쪽, 《詩體》. 對句好可得, 結句好難得, 發句好尤難得.

25) 같은 책, 卷9, 8727쪽, 《詩評》. 建安之作全在氣象, 不可尋枝摘葉. 靈運之詩, 已是徹首尾成對句矣, 是以不及建安也.

26) 같은 책, 卷9, 8727쪽, 《詩評》. 謝所以不及陶者, 康樂之詩精工, 淵明之詩質而自然耳.

27) 같은 책, 卷9, 8726쪽, 《詩評》. 盛唐人, 有似粗而非粗處, 有似拙而非拙處.

28) 같은 책, 卷9, 8720쪽, 《詩辨》. 近代諸公 ……夫豈不工, 終非古人之詩也.

엄우는 시를 평함에 있어서 工拙보다도 氣象을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 唐詩를 宋詩보다 더 훌륭하게 보았다.²⁹⁾

엄우는 또 “모름지기 活句를 參究해야 하며, 死句를 參究하지 말아야 한다.”³⁰⁾고 말했다. ‘活句’와 ‘死句’ 및 이와 관련된 ‘活法’의 문제는 江西詩派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일찍이 呂本中과 曾幾 등이 언급을 한 적이 있다. 呂本中은 江西詩派의 末流가 黃庭堅의 詩法을 제대로 잘 계승하지 못하고 여러 폐단을 드러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活法說’을 제시하였는데, “이른바 活法이란 법도가 갖추어져 있으면서 법도 밖에 나갈 수 있고 변화불측하면서도 또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³¹⁾ 뒤를 이어 曾幾도 “글에는 死句를 넣는 것을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³²⁾ 엄우가 ‘活句’와 ‘死句’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비록 그가 江西詩派를 비판하지만 江西詩派의 모든 시법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은 ‘活法’의 추구는 江西詩派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南宋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시인들이 이를 공통적으로 지향하였다. 이외에, 嚴羽는 또 句法과 관련하여 ‘俗句’를 피하고 없앨 것을 강조했다.³³⁾

③ 字法

詩句中에 표현력이 풍부한 글자를 잘 사용하면 좋은 예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라, 엄우는 <詩辨>편에서 시에서 힘써야 하는 세 가지 중의 하나로 ‘字眼’을 들었다.³⁴⁾ 魏晉南北朝 때 이미 字句 鍛鍊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어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練字>편을 따로 두어 이에 대해 논했다. 宋初 九僧의 한 사람인 保暹은 “시에는 눈이 있다(詩有眼)”고 하여

29) 같은 책, 卷9, 8726쪽, <詩評>. 唐人與本朝人詩, 未論工拙, 直是氣象不同.

30)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須參活句, 勿參死句.

31) 같은 책, 卷3, 2907쪽. <夏均父集序>. 所謂活法者, 規矩備具, 而能出於規矩之外, 變化不測, 而亦不背於規矩也.

32) 같은 책, 卷6, 5850쪽. 陸游, <贈應秀才>. 文章切忌參死句.

33)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學詩先除五俗 ……三曰俗句.

34) 같은 책, 卷9, 8718-8719쪽, <詩辨>. 其用工有三: 曰起結, 曰句法, 曰字眼.

‘詩眼’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⁵⁾ 이어서 黃庭堅이 자신의 독특한 詩學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句中有眼’을 제기하였으며,³⁶⁾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字眼’이란 말은 엄우가 처음 사용한 듯 하며 煉字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詩眼’, ‘字眼’과 관련하여 엄우는 또 《詩法》편에서 말하길, “글자를 쓰는 것은 울림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만드는 것은 圓熟하고 流暢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下字貴響, 造語貴圓)”³⁷⁾ 고 하였다. 일찍이 北宋의 潘大臨은 ‘響字’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七言詩는 다섯 번째 글자가 울려야 하며”, “五言詩는 세 번째 글자가 울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글자는 한 편의 시에서 시인의 감정과 생각을 잘 나타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표현력이 뛰어난 글자라고 풀이한 적이 있다.³⁸⁾ 潘大臨의 말은 詩眼과 聲音을 연계시켜 시어의 推敲와 鍛鍊을 주장하였다. 뒤이어 呂本中은 ‘響字’ 理論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여, 시를 제대로 잘 짓기만 하면 각 글자가 모두 ‘響字’가 될 수 있고,³⁹⁾ 하나의 詩 중에 한 두 개의 ‘響字’만 있어도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⁰⁾ 엄우는 ‘울림을 귀하게 여긴다(貴響)’라는 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聲調(聲韻)의 울림이라는 원래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를 논하면서 ‘響’을 거론하는 宋代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엄우의 이 말은 潘大臨과 呂本中 등의 견해를 이으면서 詩眼과 聲律의 아름다움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구에서 ‘貴圓’이라 한 말은 南齊의 謝朓가 일찍이 이른바 “좋은 시는 유려

35) 이치수, 〈唐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中國語文學》 第 56輯, 2012, 57쪽.

36) 吳文治, 앞의 책, 卷2, 938쪽. 黃庭堅, 《山谷文集》 卷12 〈贈高子勉四首〉. 拾遺句中有眼.

37) 같은 책, 卷9, 8725쪽.

38) 같은 책, 卷3, 2895쪽. 呂本中, 《童蒙詩訓》. 潘邠老言: “七言詩第五字要響, ……五言詩第三字要響. ……所謂響者, 致力處也.”

39) 같은 책, 卷9, 2895쪽. 字字當活, 活則字字自響.

40) 같은 책, 卷4, 4308쪽. 林之奇, 《拙齋文集》 卷2 〈記聞下〉. 紫微云: “句中要有眼, 非是要句句有之, 只一篇之中一兩句有限便是好詩.”

하고 圓美하기가 彈丸과 같다(好詩流轉圓美如彈丸)라는 말을 떠올린다. 이 말은 시에서 音調가 조화롭고 유창한 것을 가리킨다. ‘響’과 ‘圓’의 중시는 시인의 뜻과 감정을 圓熟하게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詩句의 聲律美도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결국 江西詩派의 生硬難澁한 詩風을 바로잡고자 제시하는 처방약으로 볼 수 있다.

〈詩法〉편에서 또 글자를 씌에는 반드시 그 來歷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用字不必拘來歷)고 말했다. 이것은 “글자마다 來歷이 있는 것(字字有來歷)”을 강조하는 江西詩派에 대해 지나친 추구를 경계한 말이다. 엄우는 또 시를 지을 때에 “말은 구속된 바 없이 자연스러움을 귀하게 여기니, 흙탕물 속에 빠진 채 꾸물대듯이 해서는 안 된다.”⁴¹⁾라고 말하여 자연스럽고 시원시원스러울 것을 강조했다. 엄우는 또 진부한 말, 진부한 표현을 늘어놓은 것을 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⁴²⁾

엄우는 또 “말의 기운은 굳세되, 어그러져서는 안된다.”⁴³⁾라고 하여 氣象이 ‘雄厚’한 표현을 추구하되 시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詩辨〉편에서 宋代의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末流 가운데 심한 이는 소리 지르고 떠들썩하며 성을 펼쳐내어, 忠厚한 전통을 어그러뜨리며, 거의 욕하고 꾸짖는 말로 시를 짓는다.”⁴⁴⁾고 말했다. 이것은 ‘盛唐 諸公의 詩’가 渾厚한 氣象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단히 대비되는 점이다.⁴⁵⁾

이외에 엄우는 또 ‘俗字’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⁴⁶⁾

④ 用事

엄우는 “반드시 用事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不必多使事.)”라고 말했다.

41)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語貴脫灑, 不可拖泥帶水.

42)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最忌骨董.

43)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詞氣可頡頏, 不可乖戾.

44) 같은 책, 卷9, 8720쪽, 〈詩辨〉. 其末流甚者, 叫噪怒張, 殊乖忠厚之風, 殆以罵詈爲詩.

45) 같은 책, 卷9, 8736쪽, 〈答出繼叔臨安吳景仙書〉. 盛唐諸公之詩, ……又氣象渾厚.

46)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學詩先除五俗 ……四曰俗字.

이것은 用事에 힘을 많이 쏟고 興致는 묻지 않는 江西詩派를 비판하는 말이다. 그러나 엄우는 用事の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뜻을 비쳤다. 이것은 蘇軾과 黃庭堅, 江西詩派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⁴⁷⁾

⑤ 聲律

엄우는 《滄浪詩話·詩體》편에서 聲律과 관련하여 四聲, 八病, 平仄, 用韻 등에 대해서 자세히 논했다. 〈詩評〉편에서는 孟浩然의 시에 대해 聲律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다.⁴⁸⁾ 〈詩法〉편에서는 ‘響’과 ‘圓’을 언급하면서 유려한 聲律美를 중시했다. 그런데 〈詩體〉편에서 八病의 구속을 반드시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고,⁴⁹⁾ 〈詩法〉편에서는 “押韻은 반드시 그 出處가 있을 필요가 없다.”⁵⁰⁾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너무 聲律에 매이는 것을 그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唐代의 聲律論 중에도 지나치게 성률에 매여서 自然스러움을 해치는 作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皎然은 “沈約이 八病을 엄격하게 裁斷하고 四聲을 잘게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詩의 바른 道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비판했고, 獨孤及도 당시의 사람들이 ‘四聲八病’에 대해 마치 法습을 받듯 이 정중하게 대한다고 나무랐다.⁵¹⁾

그리고 엄우는 和韻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람의 시를 가

47) 이를테면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蘇軾과 黃庭堅이 用事와 押韻을 매우 교묘하게 잘했으나 이것은 결국 後生들로 하여금 단지 用事와 押韻으로 시 짓는 것만을 알게 하고, 사물을 잘 읊조리고 뜻을 나타내는 것이 시 짓기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큰害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책, 卷3, 3237쪽. 蘇黃用事押韻之工, 至矣盡矣, 然究其實, 乃詩人中一害, 使後生只知用事押韻之爲詩, 而不知詠物之爲工, 言志之爲本也.

48) 같은 책, 卷9, 8729쪽, 〈詩評〉. 孟浩然之詩, 諷詠之久, 有金石宮商之聲.

49) 같은 책, 卷9, 8722쪽, 〈詩體〉. 有八病. ……作詩正不必拘此.

50)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押韻不必有出處.

51) 李致洙, 《唐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中國語文學》 第 56輯, 2012, 46쪽.

장 해롭게 한다.”라고 평했다.⁵²⁾ 楊萬里도 일찍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여 “시가 和韻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⁵³⁾라고 말한 적이 있다.

2) 表現上의 基本原則

첫째, 엄우는 <詩法>편에서 제일 먼저 ‘除俗’, 즉 ‘俗’의 除去를 중시하여, “시를 배움에는 먼저 다섯 가지 俗을 제거해야 한다. 첫째 俗體, 둘째 俗意, 셋째 俗句, 넷째 俗字, 다섯째 俗韻이다.”⁵⁴⁾라고 말했다. 이들의 함의에 대해 엄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詩辨>편에서 말한 字謎詩나 人名詩, 卦名詩 등과 같이 재미로 지을 수는 있어도 正法으로 내세우기에 부족한 詩體, 陳腐하고 前人을 踏襲하거나 高雅하지 않는 詩意와 詩句, 詩語, 그리고 押韻法에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押韻⁵⁵⁾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 俗字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唐代에도 이미 보여, 李洪宣의 <緣情手鑿詩格>은 “詩에서는 俗字를 꺼린다.(詩忌俗字)”는 점을 강조했다. 宋代에 들어서도 雅俗을 따지면서 俗을 피해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되었다. 蘇軾이 “속된 선비는 치료할 수 없다.”⁵⁶⁾고 하여 인품의 修養論을 중시했고, 黃庭堅은 作詩에서 ‘不俗’을 추구했으며, 江西詩派의 대표 시인 陳師道 역시 “차라리 편벽될지언정 俗되지 말아야 한다.(寧僻毋俗)”(<後山詩話>)라고 주장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엄우 역시 俗된 것을 피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강서시파의 ‘不俗’, ‘勿俗’의 강조와 입장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

52) 吳文治, 앞의 책, 卷9, 8729쪽, <詩評>. 和韻最害人詩.

53) 같은 책, 卷6, 5964쪽. 楊萬里, <誠齋集> 卷67, <答建康府大軍庫監門徐達書>. 詩至和韻而詩始大壞矣.

54)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學詩先除五俗: 一曰俗體, 二曰俗意, 三曰俗句, 四曰俗字, 五曰俗韻.

55) 張宏生은 엄우가 말한 ‘俗韻’이 江西詩派의 특색 중의 하나인 ‘險韻’의 押韻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張宏生, <江湖詩派研究>, 中華書局, 1995, 105쪽, 136쪽.

56) <全宋詩> 第14冊,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北京大學出版社, 1999, 9176쪽. <於潛僧綠筠軒>. 俗士不可醫.

다. 단지 엄우 시론의 특색은 이전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除俗’의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體裁를 비롯하여 詩意, 字句, 韻 등을 거론한 점이다. 엄우의 이러한 ‘除俗’ 주장은 作詩 일반론이면서 동시에 당시 시단에서 활동하던 江湖詩派의 ‘俗’된 作詩 경향을 警戒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⁷⁾

둘째, 作詩에서 주의해서 피해야 될 대상으로 ‘語病’과 ‘語忌’를 들면서, “語病은 제거하기 쉬우나 語忌는 제거하기 어렵다. 語病은 옛 사람도 역시 있었으나 오직 語忌만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⁵⁸⁾ 중국에서 작시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엄우 이전에도 이미 시를 짓는 방법 뿐만 아니라 시를 지을 때 피해야 되는 사항들을 동시에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劉勰은 《文心雕龍·練字》편에서 한 편의 글을 지을 때 글자의 선택에서 주의할 점을 네 가지 들었으며,⁵⁹⁾ 唐代의 詩格書에도 ‘煉字’을 거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인들이 추구할 점과 피할 점을 제시하였다.⁶⁰⁾ 中唐의 詩僧 皎然은 詩格類 저작인 《詩議》에서 作詩에서 禁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송대에 들어서 ‘詩病’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姜夔는 《白石道人詩說》에서 “詩病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시를 잘 지을 수 있으며, 詩法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詩病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엄우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⁶¹⁾ 엄우는 詩語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두어 ‘語病’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語忌’를 더 추가하였으며, 이것을 ‘語病’보다 더 기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다. ‘語病’은 詩法이나 논리에 맞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말을 가리키며, ‘語忌’는 사회 통념이나 문화 전통상 忌諱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57) 張宏生은 江湖詩派 시의 특색으로 ‘俗된 風貌’를 들고, 題材와 表現手法, 詩語의 측면에서 논했다. 張宏生, 앞의 책, 105-124쪽.

58) 吳文治, 앞의 책, 卷9, 8725쪽, 〈詩法〉. 有語忌, 有語病. 語病易除, 語忌難除. 語病古人亦有之, 惟語忌則不可有.

59) 이치수, 〈魏晉南北朝 시기의 詩法論 연구〉, 16쪽.

60) 이치수, 〈唐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56-58쪽.

61) 吳文治, 앞의 책, 卷7, 7548쪽. 不知詩病, 何由能詩; 不觀詩法, 何由知病?

이는데, 여기에 관해서 엄우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엄우 자신의 시법론도 실제로 시를 지을 때 추구해야하고 지켜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엄우는 作詩의 표현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作詩에서 ‘완곡한 詩語, 함축적인 詩意, 깊은 詩味’를 중시하여, “시의 말은 직설적인 것을 꺼리고, 뜻은 천박한 것을 꺼리고, 맥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맛은 짧은 것을 꺼린다.”⁶²⁾고 말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엄우는 시에서 興趣를 나타낼 것을 중시했으며, 盛唐의 시가 바로 이 점에서 뛰어나다고 보았다. 그것은 盛唐詩의 특색이 바로 ‘말이 끝나도 뜻은 무궁히 여운을 남기는’⁶³⁾ 숨축에 있기 때문이다.⁶⁴⁾ 엄우가 <詩法>편에서 재차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함축의 講究이다. ‘味’라는 개념으로 시를 평가하는 것은 중국 고유의 음식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점차 중국적 특색이 농후한 詩學 이론인 ‘詩味論’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宋代의 시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宋代에는 시미에 관한 논의가 보편화되어 梅堯臣, 歐陽修, 魏泰, 蘇軾, 張戒, 楊萬里, 姜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견해를 제기하였다.⁶⁵⁾ 嚴羽도 <滄浪詩話>에서 두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味’를 언급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詩法>편의 말 외에도, <詩評>편에서 “<離騷>를 오래 읽어야만 비로소 그 참맛[眞味]을 알 수 있다.”⁶⁶⁾고 말해, 前者는 創作의 경우, 後者는 鑑賞의 측면에서 ‘味’를 논하였다. 엄우의 詩味 관련 견해는 興趣說과 깊은 관련이 있다.

62)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語忌直, 意忌淺, 脈忌露, 味忌短.

63) 같은 책, 卷9, 8719-8720쪽, <詩法>. 盛唐諸人惟在興趣,……言有盡而意無窮.

64) <滄浪詩話·詩辨>편에서 함축을 추구하는 주장은 蘇軾과 黃庭堅의 시풍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는데, 엄우는 이들의 시에 대해 “一唱三歎의 餘音(韻味)에 있어서는 부족한 바가 있다.”라고 평했다. 같은 책, 卷9, 8720쪽. 蓋於一唱三歎之音, 有所歎焉.

65) 이치수, <宋代 詩味論의 배경과 특색 연구>, <中國語文學> 第55輯, 2010, 참고.

66) 吳文治, 앞의 책, 卷9, 8729쪽, <詩評>. 讀騷之久, 方識眞味.

다음으로 엄우는 ‘명쾌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했다. 詩意의 표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意貴透徹’),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듯이 해서는(‘隔靴搔癢’) 안 된다고 주장했다. 江西詩派의 시가 바로 말이 難澁한 경향이 있는데,⁶⁷⁾ 이에 대해 엄우는 “반복하여 끝까지 읽어도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⁶⁸⁾고 비판한 바 있다. 엄우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警戒의 뜻을 보였는데, 명쾌한 표현을 중시하되 너무 지나치게 딱 맞는 표현을 찾으려들지 말라고 하였다.⁶⁹⁾

엄우는 또 ‘조화로운 韻律’을 중시했다. 〈詩法〉편에는 시의 韻律이 너무 散漫하거나 너무 促急하지 말고 適切해야함을 강조하였다.⁷⁰⁾ 江西詩派 시의 폐단 중의 하나는 바로 韻律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다.⁷¹⁾ 엄우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로잡을 원칙을 제시했다.

이상으로 엄우는 시의 표현 문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주의해야 하는 5대 요소로 語, 意, 脈, 味, 音韻을 들고, 이들을 함축적이고 분명하고 적절하게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논한 바를 종합하면 엄우 《滄浪詩話》의 詩法論의 특색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엄우의 詩學은 일반적으로 詩禪說, 妙悟說, 興趣說 등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여기에 詩法論을 더하여야 비로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興趣說의 주장이 ‘무엇을’ 시에 담아 나타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67) 같은 책, 卷3, 2804쪽. 陳巖肖, 《庚溪詩話》 卷下. 然近時學其詩者, ……詞語難澁.

68) 같은 책, 卷9, 8720쪽, 〈詩辨〉. 讀之反覆終篇, 不知着到何處.

69)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最忌趣貼.

70)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音韻忌散緩, 亦忌迫促.

71) 같은 책, 卷3, 2804쪽. 陳巖肖, 《庚溪詩話》 卷下. 必使聲韻拗振.

대해 엄우가 제시한 시학적 관점이라면, 그의 詩法論은 ‘어떻게’ 시를 지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南宋末의 劉克莊의 詩話에 일찍이 游九言이 江西詩派 시의 폐단을 질책하며 “왕왕 시의 音韻이 매끄럽지 못하고 意象이 迫切하며, 또 議論이 너무 많아, 옛 시가 性情을 吟詠한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다.”⁷²⁾라고 말한 비평이 실려 있는데, 엄우의 지적과 매우 유사하다. 엄우는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興趣說을 강조하고, 그 실행 방법을 詩法論에서 이야기하였다.

둘째, 중국의 詩法 이론 고찰은 송대에 이르러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송대 詩學의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가 바로 詩法에 대한 講究이었다. 엄우 역시 詩法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며 《滄浪詩話》에서 〈詩法〉편을 따로 마련하여 作詩法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엄우의 《滄浪詩話》의 시법론은 〈詩法〉편에 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도 관련 언급이 보인다. 엄우는 詩法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논했는데 이것은 《滄浪詩話》 이전에는 보기 드문 일이다. 엄우의 시법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며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를 짓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두루 언급하였으며,⁷³⁾ 구체적인 作法과 표현상의 중요 원칙 및 원리를 제시하였다. 엄우는 한 편의 시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시법을 ‘篇法’(‘章法’), ‘句法’, ‘字法’으로 나누었는데, 대다수의 宋나라 사람들은 엄우처럼 이렇게 章法, 句法, 字法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句法의 개념도 모호하여 章法과 句法, 그리고 字法을 하나로 섞어 이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다.⁷⁴⁾ 엄우는 또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

72) 같은 책, 卷8, 8404쪽. 劉克莊, 《後村詩話》 後集 卷2. 游默齋序張晉焉詩云: “近世以來學江西詩, 不善其學, 往往音節聱牙, 意象迫切. 且議論太多, 失古詩吟詠性情之本意.”

73) 엄우의 시법론은 禁忌의 제시가 상당한 편폭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詩法〉편의 경우, 규범 준수 의미로 ‘須’자를 사용한 것이 5번, ‘貴’자를 사용한 것이 5번, ‘可’자를 사용한 것이 한번인데 비해, 부정적이며 禁忌視하는 의미의 ‘忌’자 사용이 10번, ‘不’자 사용이 8번(‘不可’, ‘不必’ 포함), ‘勿’자 사용이 한번으로, 전체적으로 禁忌하는 말의 횟수가 많다.

74) 王德明, 《中國古代詩歌句法理論的發展》,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0, 60쪽,

는 한 편의 시가 發端, 頷聯, 頸聯, 그리고 落句(結句)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시의 표현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5대 요소로 語, 意, 脈, 味, 音韻을 들고, ‘완곡한 詩語, 함축적인 詩意, 깊은 詩味’, ‘명쾌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조화로운 韻律’을 주장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엄우가 중요시한 바 ‘興趣’를 잘 표현하기 위한 詩法이며, 동시에 또 宋詩, 특히 江西詩派와 江湖詩派 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寫作 방법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우는 詩法을 무조건적으로 固守하고 盲從하지는 않았다. 지나친 詩法의 집착보다 活法의 운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셋째, 엄우의 시법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 중의 하나는 바로 宋末의 그가 宋代의 시법론 중에서 주요 이론을 종합한 것이다. 사실상 엄우의 시법론은 특별한 개념이나 분류에 의한 새로운 시법의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엄우는 시법의 覺醒時期인 魏晉南北朝 이후, 唐代를 거쳐, 자신이 살았던 宋代 後期 당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론가들에 의해 제기된 여러 시법론들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精髓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 고찰하였는데, 그간의 주요 시법론을 集大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엄우의 《滄浪詩話》의 〈詩法〉편 등을 통하여 宋代의 시법론이 그 앞의 唐代나 그 이전 시대와 비교되는 어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데에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적지 않으며, 여기에서 다시 《滄浪詩話詩法》편 등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주요한 몇 가지를 뽑으면, ① 雅俗論, ② 詩味論, ③ 工拙論, ④ 活法說, ⑤ 響字說 등은 宋代에 들어와 이전에 비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했던 주요 문제들이고, ⑥ 血脈說은 송대에 더욱 본격적으로 토론된 시론이다. 엄우는 여러 시론들의 精髓를 모아 실제 창작에 운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일부 시론에 관해서는 기존의 설에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더하여 논의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혹은 그 폭을 더 넓혔다. 그리하여 그가 중시하는 興趣說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종합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엄우의 새로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엄우는 또 시법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前代의 훌륭한 작품들, 이를테면 《楚辭》를 비롯하여 漢魏晉詩, 盛唐詩 등을 두루 熟讀, ‘熟參’함을 통하여 詩道の ‘妙悟’를 이를 것을 강조했다.

엄우의 시법론은 당시 詩壇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時代性을 가지면서 동시에 宋代 시학을 마감하는 시기에 宋代의 시법론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것이 엄우 《滄浪詩話》의 시법론이 宋代 詩學史에서 갖는 의미이기도 하다.

<References>

1. Guo Shaoyu. *The Criticism and Explanations Canglang Poetry Talks*. Heluo book publishing house, 1978.
2. Huang Jingjin. *The Study on Yan Yu and his poetry theory*. WenShi Zhe Publishing House, 1986.
3. Lee Chi-soo. “A Study on the poetics of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8, (2015).
4. Lee Chi-soo. “A Study on the problem of Poetics,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Tang Dynasty's Poetic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56, (2012).
5. Lee Chi-soo. “Discussion of Poetry Law of Jiang Kui 〈Poem saying of BaiShiDaoRen〉”. *Chinese Forum* Vol.36, (2008).
6. Lee Chi-soo. “Laws of Poetry studying according to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Sheng Gu's Forum* No.36, (2005).
7. Wang Dem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syntax in ancient Chinese Poetry*.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2000.

8.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Fenghuang Press, 2006.
9. Zhang Hongsheng. *A Study on the Jianghu Poetic School*.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5.
10. Zhang Jian. *The Collation and Comment on Canglang Poetry Talks*. Shanghai Ancient Books House, 2011.
11. Zhang Jian. *The Study on Canglang Poetry Talks*. Series of History and literary of Taiwan University, 1966.
12. Zhou Yukai. *General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poetics in the Song Dynasty*. Bashu Publishing House, 1997.
13. Zhu Zhirong. "On the Poetry language view by CangLang Poetry Talks". *Social Science Journal* No.2, (2015).

< 참고문헌 >

1. 郭紹虞, 《滄浪詩話校釋》, 河洛圖書出版社, 1978.
2. 黃景進, 《嚴羽及其詩論之研究》, 文史哲出版社, 1986.
3. 李致洙, 〈魏晉南北朝 시기의 詩法論 연구〉, 《中國語文學》 第68輯, 2015.
4. 李致洙, 〈唐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中國語文學》 第56輯, 2012.
5. 李致洙, 〈姜夔 《白石道人詩說》의 詩法論〉, 《中國語文論叢》 第36輯, 2008.
6. 李致洙, 〈宋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問題 研究〉, 《省谷論叢》 第36輯, 2005.
7. 王德明, 《中國古代詩歌句法理論的發展》,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0.
8.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9. 張宏生, 《江湖詩派研究》, 中華書局, 1995.

10. 張健, 《滄浪詩話校箋》, 上海古籍出版社, 2011.
11. 張健, 《滄浪詩話研究》,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1966.
12. 周裕鐸, 《宋代詩學通論》, 巴蜀書社, 19977.
13. 朱志榮, 《論〈滄浪詩話〉的詩歌言語觀》, 《社會科學輯刊》第2期, 2015.

< Abstract >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Yan Yu's Canglang Poetry Talks, this book is the most typical poetics criticism of Song Dynasty and also is in a strong position o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until now. Previous research is concentrated in few points such as Analyzing Poetics Metaphorically with Chan(以禪喻詩), Miaowu Theory(妙悟說) and Xingqu Theory(興趣說). That research was mainly based on <Poetic Differentiate(詩辨)>, and People didn't pay much attention to it or simply put <Poetic(詩法)> brief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Song Dynasty's prosody was the study of the poetics. Yan Yu was very strong on poetics, deliberately he arranged <Poetic> in Canglang Poetry Talks and specifically discussed in poetics. The content of <Poetic> is quite extensive. It is mentioned about some precautions for people who want to write and learn poetry, dealt with poetics to many ways as writing method(篇法), syntax(句法), diction(字法), quotation(用事), rhyme(押韻) etc. In addition it presented the main rules and principles of expressions. However, he opposed the poetics unconditionally and opposed it. Yan Yu considered that desirable poetry had must express 'Interest' and proposed the poetics to express this 'Interest' well. Since Wei Jin and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rough Tang dynasty, ranging from Song Dynasty, the Poetic Theory of

Yan Yu's Canglang Poetry Talks was comprehensive and organized the various arguments about poetics which is raised by many poetic theories.

Key Words : 嚴羽(Yan Yu), 滄浪詩話(Canglang Poetry Talks), 詩法論(Poetic Theory), 宋代(Song Dynasty), 興趣(Inspired feeling)

